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6)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I. 북미

[미국]

1. (2020년 9월 25일) 코로나 확진의 소비자 물가 지수(1) - 식품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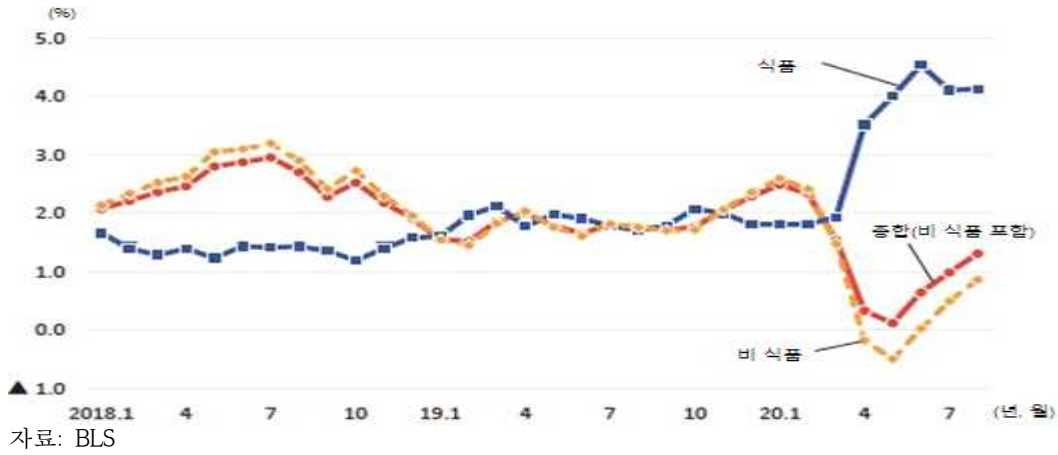
미국 노동성 노동 통계국(BLS)이 매달 공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²⁾)은 최근 식품 비식품 함께 많은 월에서 전년 동월을 넘어 소비자의 구입 가격(소비자 단계에서의 물가)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인 감염 확대로 미국인 소비 생활에 영향이 나오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그 해 8월 현재까지 종합(비식품 포함)의 CPI는 줄곧 전년 동월을 넘어선 것의 상승률은 크게 둔화되었다(그림 1).

둔화된 요인으로는 비식품이 4월 5월에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꼽힌다. 비식품의 가운데도 휘발유와 의류 관련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바닥으로 된 5월의 CPI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3.8%, 이 7.9%하락하였다.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5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2)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준년을 100으로 한 경우 가격 지수의 것을 말하며, 물가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본 조사는 품목별로 기준 년도가 다르다는 점 등에서, 본고의 본문이나 그림에서는 전년 동월비를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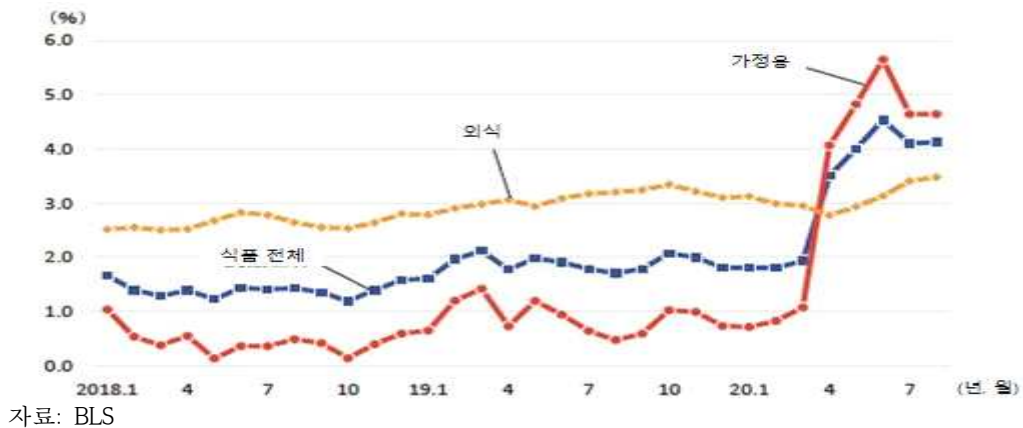
그림 1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비식품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식품의 CPI는 COVID-19유행 예전에는 동 2% 정도에 머물던 중 4월 이후는 급상승하고, 정점의 6월은 동 4.5% 올랐다. 이는 COVID-19에서 생긴 공급망의 소용돌이에 따른 일부 농산물 도매가격의 상승과, 가정 내 식사 기회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 소매의 수요 증가 등이 요인이라고 보며,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 내역을 보면, 3월까지 동 1% 미만에 머물던 가정 내(소매 등)은 6월에는 이 5.6%까지 상승했다. 한편 동 3% 정도로 비교적 높게 유지하던 외식(테이크 아웃 및 택배 포함)은 4월 이후 완만하면서 상승 기조가 되고 있지만 가정 내를 밀들었고, 외식 CPI에 대한 영향은 가정 내에 비해서 작은 것이다(그림 2). 요인으로는 식품 메뉴 가격에서 원료 농산물의 비율³⁾이 외식이 가정 내보다 작은 것이나(그림 3), 외출 제한으로 외식 수요 감소 등이 꼽힌다.

그림 2 식품의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전년동월비)



3) 가격에서 원료 농산물의 비율은 가정 내의 식품 가격, 외식 요리 메뉴 가격에서 농가에 따른 농산물 출하시의 농산물의 가치 비율을 말한다, 출하 후부터 소비까지 관련된 유통 단계(수송, 도매, 외식점이나 소매점에서 인건비 등)에서 부가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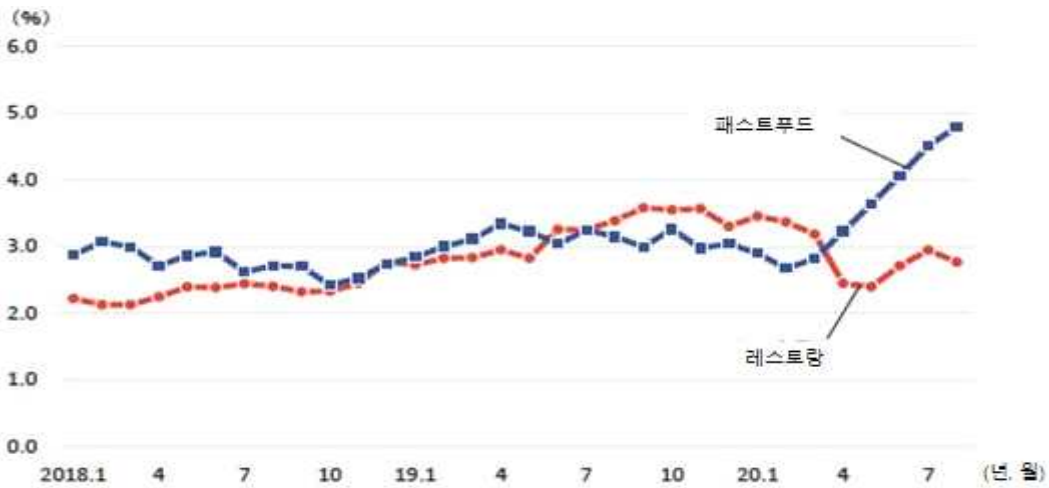
그림 3 식품·요리 메뉴가격에서 집하는 원료농산물 비율



주: 나머지 비율은 농가에 의한 농산물 출하 후부터 소비까지에 관련된 유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자료: USDA

외식의 업태별의 CPI의 동향을 보면, 음식점은 2020년 4월에 크게 둔화되었지만, 전년 동월을 웃돌아 추이하고 있다. 한편, 주문이 비교적 좋은 패스트 푸드는 그 해 3월 이후 계속 올랐으며, 4월 이후는 레스토랑을 웃돌게 되고 8월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였다(그림 4).

그림 4 외식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 동월비)



자료: BLS

[참고]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外食支出額, 2019年は過去最高も2020年2月以降急落(米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6月 9日 発)」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9月25日付) コロナ禍の消費者物価指数 (1), 食品が急上昇(米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1月 號,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

2. (2020년 9월 25일자) 코로나 화근의 소비자 물가 지수(2)-쇠고기는 6월 전년 동월 대비 25.1%로 급상승

미국 노동성 노동 통계국(BLS)이 매달 공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⁴) 중 육류, 계란은 어느 품목도 도매가격에 대체로 연동되고, 2020년 4월 이후 전년 동월비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1). 특히 쇠고기, 송아지 고기는 도매가격이 일시적인 급등이 소매가격에 전가되면서 피크시인 6월은 동 25.1% 올랐다. 8월은 동 9.6% 상승으로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수준이다. 또 계란에 대해서는 미국 내외의 왕성한 수요 등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크게 변동하고 있다.

그림 1 육류·계란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자료: BLS

우유·유제품을 보면, 2019년 이후 어느 품목도 상승세이다(그림 2).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사태의 공급망의 혼란으로 유가와 도매가격 등락이 있지만, CPI의 변동은 쇠고기와 달걀과 비교하면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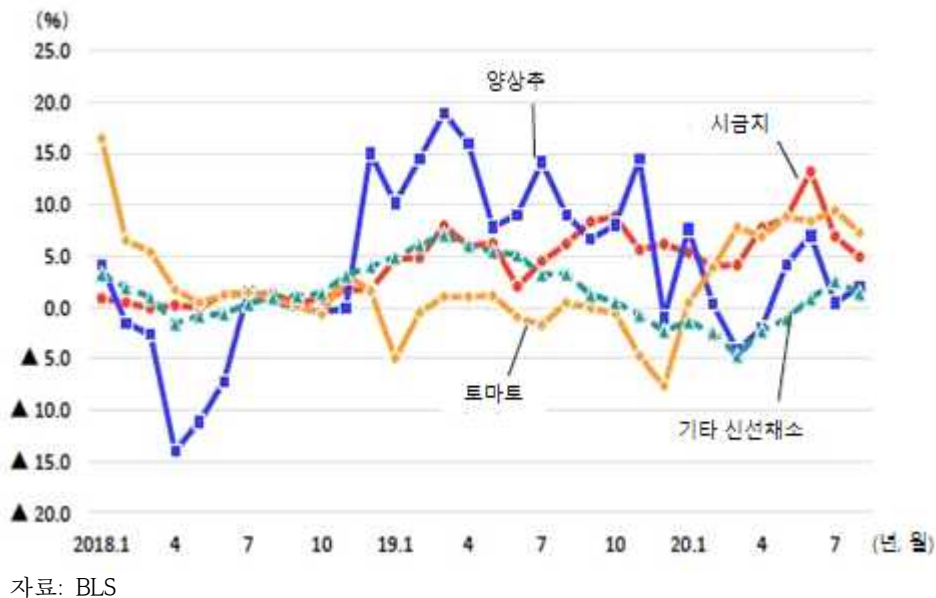
4)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기준년을 100으로 한 경우 가격 지수의 것을 말하며, 물가의 변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본 조사는 품목별로 기준 년도가 다르다는 점 등에서, 이 글의 본문이나 그림에서는 전년 동월비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2 우유·유제품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신선 채소를 보면, 2019년은 재배 면적 감소와 호조인 수요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대체로 전년을 웃돌게 되었다(그림 3). 2020년 4월 이후, 감자튀김에 생산량의 약 3분의 1이 하는 시금치, 양상추, 토마토 등 샌드위치, 부메뉴(샐러드 등 메인 요리에 부수되는 요리)등의 외식 수요가 많은 품목은 외출 제한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되었지만, 소매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림 3 신선 채소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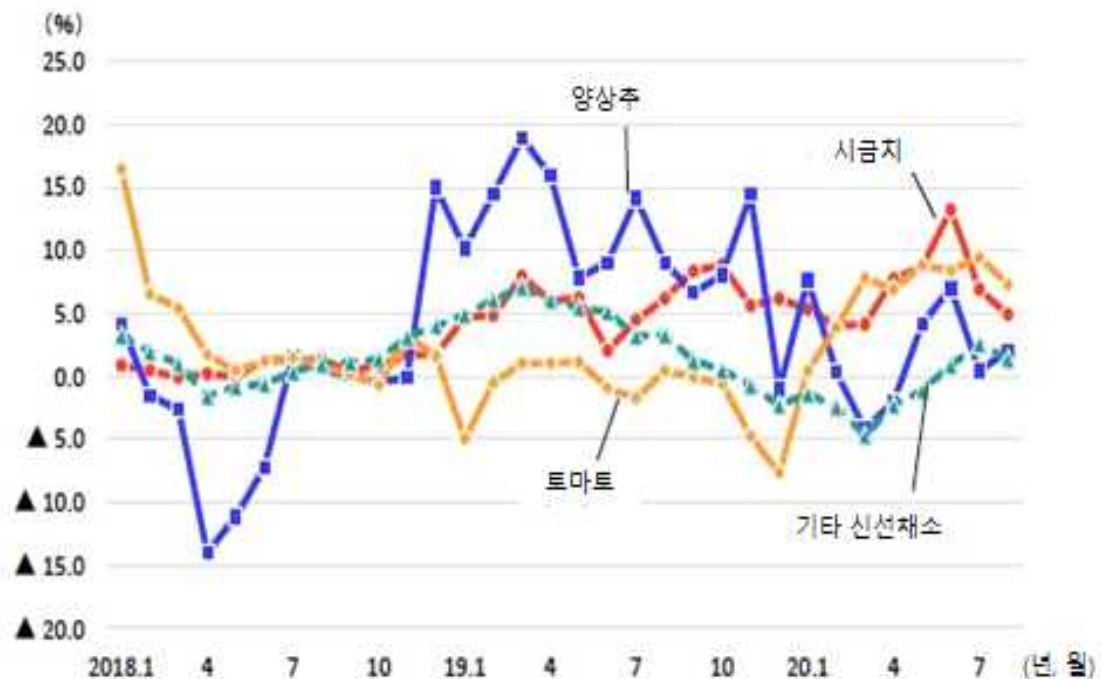


설탕 및 인공 감미료를 보면, 일기불순에 따른, 천채당, 감자당 모두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2019년 7월 이후 전년 동월을 넘어섰고, 2020년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하였지만, 8월에는 동 6.0% 상승으로 한창 때에 비해서 안정되고 있다(그림 4). 이는 코로나 사태에서 소매 수요 시프트에 의한 작은 봉지 출하가 증가했지만, 식품업체와 외식업체로의 큰 봉지와 액당의 대규모 출하 감소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닌 것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4 설탕 등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전년동월비)



자료: BLS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9月25日付) コロナ禍の消費者物価指数
(2), 牛肉は6月に前年同月比25.1%と急上昇(米国),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1月號,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

3. (2020년 11월 2일) 2020년 미국 대선 주요 동향 및 전망, 코로나 19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 전망

미국은 2020년 11월 트럼프 현직 대통령(공화당)과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이 대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다소 높지만 격차가 작아 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 차별 시위, 우편 투표 등이 이번 미 대선의 큰 변수로 등장하였다.

2020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나, 당선에 필요한 결정적 메시지 부재 및 대중 갈등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지층 결집효과 등으로 인해 이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론조사 결과 격차,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 △2018년 중간 선거에서의 민주당 주지사 득세, △우편투표의 상대적인 유리성,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상반기 경제 상황의 저조 등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 반면, 2016년 대선에서 빼앗긴 3개 주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를 위한 바이든 후보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갈등을 활용한 지지도 결집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2016년과 같은 이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대통령 주요 공약>

바이든과 트럼프의 10대 공약은 비교하면, 바이든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무게를 둔 반면, 트럼프는 성장 친화적 경제정책 지속에 비중을 두고 있다.

【 바이든과 트럼프의 주요 10대 공약 비교 】

구분	 바이든 민주당	 트럼프 공화당
1 통화정책과 MM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정확대정책에 동의한 저금리 선호 • MMT 추종하는 스테파니 칼론 교수의 테스크 포스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팽창 및 저금리기조 선호 지속 • 미 연준 압박 통해 아이스 굴리 및 수익 불곡신제어 등 추가 완화 유도
2 조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7%에서 39.6%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성화 위한 추가 감세 및 'Made in America'에 대해 세역공제 •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를 유지
3 외교 및 대외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과 협어 등 동맹강화 우선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강력하나 관세정책에는 비판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유지 • '중국 의존 종식' 의제 감안하면 견결한 대응 무역정책기조 지속
4 기업과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개선 • 은행 자본요건 강화 등 월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친화적 정책기조 지속 • 대형은행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5 클린에너지, 친환경,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클린에너지 경제 지향 • 화력기후합력 제거 및 온실가스 완속 목표 획기적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불신(파리기후협약 탈퇴) • 원유 시추를 위한 연방부지 개발 확대 등 환경 관련 규제 완화
6 인프라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 투자 • 4년 2조달러 투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C 투자 중심의 인프라 투자 • 대형 건설사업 중심 2조달러 투자
7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y America' 통해 제조업 부흥 • 제조업 공급망 확충에 4년간 7천억달러 예산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지속 • 미국으로의 Reshoring 유도 및 수입의존도 감소 정책 지속
8 오피스케어,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케어 강화 및 메디케어 확대 • 처방약가격 인하 위해 에러조항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 원칙 따라 오피스케어 폐지 • 건강 통해 의료보험료 인하 유도
9 중산층 복원과 최저임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시간당 15 달러로 인상 • 양질의 일자리 통해 중산층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복원 위한 부류세 반대 • 최저임금, 시간당 7.25 달러 유지
10 한반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Bottom-Up 방식 선호 • 주한미군 철수 및 방위비 인상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Top-Down 방식 선호 •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인상 확대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회복 통한 안정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친화적 경제정책 지속

출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미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산업을 재건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경제 공약으로 발표하고 ‘국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약에는 새로운 통상공약이 없고, 공화당 또한 2020년 정강·정책을 발표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통상정책의 연장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는 대기업 위주, 세금 인하, 중국 적대적인 면을 보이는 반면, 바이든은 중소기업 위주, 세금 인상, 중국과 동맹을 강조해 두 후보의 공약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공약 비교 】

영역	트럼프	바이든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지속 CoVID-19 책임론 중국에게 부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낮추거나, 완전히 단절 NAFTA 재협상 USMCA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입규제 에너지, 반도체, 전기전자, 통신인프라, 원자재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미국 내 공급망 구축 국내생산 보조금, 전략적 재고 확충, 환경정책 행위 분석 활동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동맹과 연계하며 구축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가속화 계획, 5G 산업 주도권 투자 펀드 조성 사회간접자본 재건 망 중립성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고속 철도망 구축 등 전국 고속 인터넷망 구축, 격차 해소 망 중립성 지지
반독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품위법 230조 반대 빅테크 기업 독점금지 조사 실시 기업 M&A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품위법 230조 반대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TF 구성 엄격한 독점금지 감시 및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규정 마련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율 21%로 인하(2016년 대선기간 15% 공약) 중소기업 세금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율 15-18.8% 내로 인하 정부 부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28% 인상 장부상 1억 달러 이상 기업에 Minimum tax 신설 외국 자회사 GILTI 세율율 21%로 두 배 인상 40만 달러 이상 고용주, 근로자에 12.4%의 사회 보장 세금 적용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39.6%로 인상
기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 자동차 연비기준 완화 등 친 탄소정책 매탄규제 폐지(Roll-b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술 등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노력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자료: 주요 언론, 머릿츠증권환경컨설팅서스 내 리포트 리서치센터

<통상정책에 대한 입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통상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재선된다면 지난 4년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후보 역시 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다만, 양 후보 간에 가장 큰 차이는 환경 정책 부문이다.

바이든의 주요 공약 (한국 영향)



구분	한국 영향	주요 내용
세계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제2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대의 정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은 완화될 전망 반면 북한 문제 및 한반도 갈등 문제는 오히려 해소 시장이 지연될 전망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통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든 후보의 실향을 볼 때 표면적으로 통상국과의 관세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 그러나 미중 간 대립 구도 자체는 유지. 통상 및 제조업 정책은 보호 무역주의 경향이 있음 미국 제품 우선 구매 및 제조업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부담
재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큰 정부를 선호함. 재정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 법인세과 부유세(소득 상위층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반면 인프라/환경 투자 규모는 확대될 예정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이다. 이후 인플레이 동세가 쉽지 않을 전망
통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MMT(현대화폐이론)와 '큰 정부'를 선호하는 정책 기조 및 높은 정부부채 부담을 감안할 때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도 상당기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전망 그러나 MMT의 경우, 인플레이가 높아질 경우 통제가 어려움. 중세나 금리인상 모두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임. 장기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

출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별 영향 분석 (바이든 당선시)

구분	정책	영향
 Renewable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력부문 탄소배출 2035년 제로 태양광 패널 5억개 풍력터빈 6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 천연가스 발전설비 폐쇄 속도 빨라질 것 재생에너지 연간 설치량 현재 대비 3배 이상 증가 예상
 Clean C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도입 50만대 스쿨버스, 3백만대 연방정부 차량 친환경차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수소차 판매 고속 성장세로 전환 전기차와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대
 Mobility (ZEV) Zero-Emission Vehi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300만대 규모의 정부 구입 차량을 전량 전기차로 교체 친환경차 산업에 대한 질증적인 투자를 통해 100만개 일자리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정 지원책 수립할 계획 중국, 유럽 시장에 비해 뒤처졌던 미국 친환경차 시장의 특별적인 성장세 나타날 것. 친환경차 산업에 긍정적
 Chemistry/Batt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년 탄소배출 제로화 E&P 공유지 임대 신규 허가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휘발유차 금지 시 원유 수요 감소 전기차 시장 개화 에탄(원재료) 조달 차질로 화학설비 증설 취소 및 연기
 Semiconductor/De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규범 재건, 유연한 이민정책 중세 정책, 환경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리콘밸리 기업 등에 긍정적 한국 테크 기업들 상대적으로 준비 미흡

출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Mobility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규제 강화 및 탄소세 부과 'Made in USA' 우대 정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준을 뒤엎고 탄소세 부과 등 강력한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을 펼칠 전망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할 계획으로 수입차에 대한 견제 지속될 전망
	Conventional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년 탄소배출 제로화 탄소배출감축 실적 기업에 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세 및 환경비용 부과 등 화석연료의 비용 증가로 재생에너지 대비 발전단가 상승해 발전사 실적 악화
	Inter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중위법(CDA) 230조 폐지 법안세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의무가 강화됨 세계 제1위 있던 일부 테크 기업들의 이익에 부정적
	Steel/Me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철강 관세 유지 시사 과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그린에너지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의 기초 지속될 것 화석연료향 철강수요 둔화, 신재생 에너지향 신규 수요 확대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전통 에너지 플랜트 투자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신사업에 관심 증대 예상되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미국 사업 비중 미미한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출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2020년 미국 대선: 2020년 미국 대선 주요 동향 및 전망’,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3, 2020년 11월 2일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AGV9OUYs/(20201102)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2020.10.5.),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바이든이 미 대통령이 된다면” (2020.1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2020.10.19.),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https://www.eugenefn.com>)

4. (2020년 11월 2일) 막대한 코로나19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민 대부분, 여전히 트럼프 지지

지난 2년간 발생한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19는 미국 농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 설문조사(Zhang and Li, 2020)에 따르면, 미국 농민들 대부분은 다가오는 2020 대선에서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무역수지 악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과 2019년 중국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 부과로 미국 주요 작물의 대중(對中) 수출이 급감하였다. 콩(Soybean)의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손실의 크기는 주(State)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60억 달러로 최대 손실을 기록하였고, 이외 11개 주는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

[연방 보조금]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 부문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연방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한 보조금 프로그램이었다. 해당 보조 프로그램은 미국 농민들에게 2018년 85억 달러, 2019년 143억 달러를 지급하였다. 손실액이 주(State)별로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액은 손실액 크기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고,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중서부(Midwest)지역 주(State)에 집중되어 있다. 중서부 지역의 주란 Iowa, Nebraska, Indiana, Kansas 등이다.

보조금이 세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몇몇 주는 손실 대비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손실을 본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60억 달러의 손해,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20억 달러의 세금 기여에도 불구하고 손실 보전금액으로 1억 6백만 달러만 지급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손실] 미·중 무역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농민들은 또 다른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나, 이 역시 공화당 지지층이 집중된 중서부(Midwest)지역에 주로 지급되었다. 미·중 무역 전쟁 손실 보조금과 코로나 19로 손실 지원금 총액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빠르게 증가하였고, 2020년 460억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에 대한 여전히 지지] 대미(對美) 보복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식품 업체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하였고, 이에 따라 브라질의 대중(對中) 콩(Soybean) 무역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의 콩(Soybean) 생산자들은 2020년 5월 및 6월 역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미국 내 콩(Soybean) 생산 지역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중서부(Midwest) 농민들의 56%는 대중(對中) 무역 전쟁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 8월 Farm Journal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농민 중 82%가 다가올 2020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5%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민 대부분, 여전히 트럼프 지지,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3, 2020년 11월 2일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AGV9OUY/20201102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미국 농업응용경제학회(AAEA) Members in News, “Most US farmers remain loyal to Trump despite pain from trade wars and COVID-19” (2020.10.10.), (<http://blog.aaea.org/search/label/Members%20in%20the%20news>)

5. (2020년 11월 2일)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 정부의 식량 안보 우려는 커졌지만, 미국 작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Archer Daniels Midland ADM.N의 CEO Juan Luciano는 COVID-19 발병으로 인해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수입업체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랜만에 미국산 옥수수과 대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은 식품을 사재기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면 식품 가공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뒤흔었다.

Luciano는 분기별 결과를 보고한 뒤 전화 회담에서 “정부들이 식량 안보와 전 세계에 식량 공급을 계속하는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Luciano는 “글로벌 곡물업계 1위인 ADM은 공급 과잉 지역과 수출업체들이 적자를 겪고 있는 지역을 연결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브라질 대통령 Jair Bolsonaro은 “세계 최고의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은 국내 가격 상승으로 대두를 포함한 주요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곳” 이라고 밝혔다. Luciano는 브라질이 대두 재고를 고갈시켰고 푸드 인플레이션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Luciano는 “통화 변동성이 큰 경쟁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농부들은 농작물을 판매할 동기가 거의 없으며, 미국을 주요 공급국으로 남겨두고 있다” 고 말했다. Luciano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세계는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 공급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대두 수입국인 중국이 올 여름과 가을에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구매를 늘렸다. 로이터 통신은 동물 사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수백만 톤의 옥수수 추가 수입 허가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ADM은 코로나바이러스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미국의 옥수수 건조 공장 두 곳에서 에탄올 생산을 중단했다. 최고재무관리자인 Ray Young는 “올 겨울 제분소는 유휴 상태로 있을 예정이지만 2021년 상반기에 재가동될 수 있다” 고 말했다. ADM은 손세정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에탄올 공장의 산업용 알코올 생산을 늘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VID-19 raises governments’ food security concerns, demand for U.S. crops(코로나바이러스는 정부의 식량 안보 우려와 미국 작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2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75/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6. (2020년 11월 4일) 美 ADM사, 내년 식음료 트렌드 Top 5 발표-영양식, 지속가능성, 식물성 대체식품, 장내 미생물, 투명성 등 소비자 식습관에 큰 변화 가져올 것

코로나 19로 소비자들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생기는 가운데, 미국의 영양식품 전문 업체인 ADM 사가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식음료 트렌드 가치를 발표했다.

첫째,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 확대, 익숙한 풍미와 색소로 감각을 자극하면서 천연 성분을 함유한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능성 제품들이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속가능성 강화, 탄소배출 절감, 폐기물 감소,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등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지속가능성 중심의 트렌드가 확산될 전망이다.

셋째, 건강을 위한 장내 미생물 활용. 코로나로 면역력 증진, 체중관리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등 장 건강을 위한 식음료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식물성 유제품과 육류 그리고 대체 해산물 등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끝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제품의 원산지와 영양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뢰 제고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제품 라벨링 등 업계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ADM사는 “코로나 19로 건강증진을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능성 식음료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업계동향] 내년 식음료 트렌드 Top 5 - 美 ADM사 발표, 영양식, 지속가능성, 식물성 대체식품, 장내 미생물, 투명성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4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0월 29일자

7. (2020년 11월 12일) 美, 홈쿡 증가로 버터 판매량 급증, 랜드 오 레이크스社, 2020년 총 버터 판매량 평년대비 20% 증가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과 식품서비스업의 영업중단 등으로 전 세계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유업체 중 하나인 랜드 오 레이크스는 기록적인 버터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서 요리하는 이른바 ‘홈쿡’이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버터 판매량이 약 13만톤에 달하며 2020년 총 판매량은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당 업체 매출의 15-20%를 차지하는 식품서비스업의 수요 감소를 상쇄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美, 홈쿡 증가로 버터 판매량 급증-랜드오레이크스社, 2020년 총 버터 판매량 평년대비 20% 증가 전망-’,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2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1월 3일자

8. (2020년 11월 13일)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 - 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간편식, 요거트, 식물성 대체식품, 부가가치 제품, 사업 확장 등

코로나19로 유제품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 스마트브리프가 낙농산업에 자리 잡은 트렌드 5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간편식 수요 확대.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요거트 치즈스틱 등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간식 외에도 개별 포장된 포션 치즈 등 간편식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요거트 붐. 시장조사전문업체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요거트 수요가 늘어나며 요거트 시장이 연간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저당 요거트를 비롯해 오트밀 토핑이 추가된 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가 출시되고 있다.

셋째, 식물성 대체식품 성장.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귀리, 콩 등 식물 기반 대체식품들이 출시되며 대체식품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장점만 뽑아낸 하이브리드 우유가 출시되기도 했다.

넷째, 부가가치 제품 성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에 단백질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 보충제가 첨가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끝으로, 사업 확장. 대형 유업체들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식음료업체인 네슬레는 6개월 안에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겠다는 목표로 최대 규모의 유제품 및 식물성 대체 식품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포스트 코로나 낙농 트렌드 Top 5-美 스마트브리프 발표 - 간편식, 요거트, 식물성 대체식품, 부가가치 제품, 사업 확장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3일자
- 원문출처: smartbrief.com, 11월 11일자

II. 남미

[브라질]

1. (2020년 11월 3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겪는 브라질,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대두 수입, 멕시코 연안 지역 터미널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미국 대두 선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 인근의 미국 곡물 수출터미널이 브라질로 선적하기 위해 미국산 대두 3만 8,000톤을 대량 화물선에 싣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두 수출국인 미국에서 오일시드의 1위 공급국인 브라질로의 이례적인 선적은 브라질에서 국내 주요 식량 가격 상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Refinitiv Eikon 선박 데이터에 따르면, Discoverer 선박은 월요일 아침 미시시피 강을 따라 있는 터미널 루이지애나 주 Louis Dreyfus Port Allen에 도착했다. Discoverer는 대형 파나맥스 선박의 절반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handysize’ 선박으로, 중국 등 주요 수입국으로 한 번에 6만~7만 톤을 옮기는 데 쓰인다. Louis Dreyfus는 코멘트를 구하는 이메일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브라질 대통령 Jair Bolsonaro은 지난 주 브라질에서 수입 대두와 쌀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메르코수르 무역권 밖의 옥수수, 대두 및 대두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잠정 중단했다. 올해 초 기록적인 몇 달 동안 브라질의 대두가 중국에 수출되면서 대두가 고갈되었으며, 다음 수확부터 상당한 양의 대두가 1월 이전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

미국 인구조사국 무역자료에 따르면, 3만 8천 톤의 미국산 대두가 브라질에 수출된 것은 1997년 이후 가장 큰 거래다. 브라질 오일시드 분쇄업체 그룹인 Abiove는 지난 주 미국산 대두 화물이 브라질에서 내부 가공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많은 양을 수입하려면 미국에서 승인되었지만 브라질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특정한 유전자 변형 대두 형질의 승인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razil-bound U.S. soybean vessel loading at Gulf Coast terminal(멕시코 연안 지역 터미널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미국 대두 선적 적재)’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3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8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Ⅲ. 유럽

[EU]

1. (2020년 8월 11일) EU위원회의 코로나19 추가대책의 특징

EU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EU의 농업 및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EU경쟁법의 일부를 적용제외(원유 생산감축을 목적으로 한 ‘자주적 원유공급계획’ 수립)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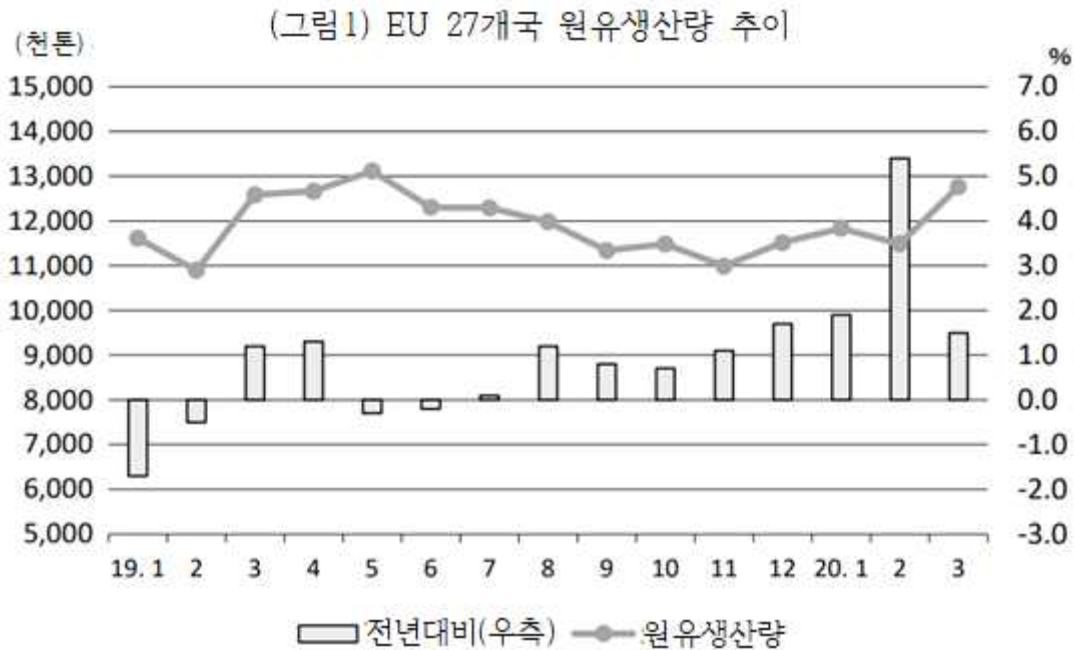
1. 추가대책 수립 배경

유럽 원유생산자단체인 EMB(European Milk Board)는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우유·유제품시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차원에서 자주적인 원유 생산감축 프로그램을 즉시 실시할 것을 EU위원회에 요청했다. EMB는 EU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생산감축 실시가 필요하다면서, 증산 농가에는 제재를 가하는 반면 자율적으로 생산감축에 나서는 농가에게는 전년동월대비 감축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낙농가의 생산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EMB는 EU내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버터와 탈지분유의 PSA(민간재고보조)와 공적시장개입(수매)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 유제품을 재고로 쌓아두는 것은 시장압력을 완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재고량 자체가 유해한 압력을 만들어 낸다’ 면서 즉시 자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잉여원유 생산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는 2016년에 원유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통농업정책(CAP)의 공통시장규칙(CMO)에 규정된 시장혼란 시 특별조치로서 생산감축을 목적으로 한 ‘자주적 원유공급계획’ 수립을 가능토록 하는 EU규칙을 제정하고, 특정 기간을 한정하여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EMB가 요청한 자주적인 생산감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확산 속에서 다른 나라들도 낙농가와 유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EU처럼 ‘자주적인 생산감축’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은 침체된 원유가격 보전하고, 캐나다는 치즈·버터의 시장격리를 지원하는 등의 재정지원책을 실시한 바 있다.



2. 추가대책

야누시 보이치에호브스키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5월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업과 식품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면서, “일련의 추가조치가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서 즉시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한 추가대책은 국가보조 증액, 선급금 증액, 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등 EU위원회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초기에 시행한 포괄적인 대책에 이어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재고보조(PSA, Private Storage Aid)

유제품(탈지분유, 버터, 치즈)과 육류를 대상으로 하는 PSA를 발동한다. PSA는 대폭적인 가격하락 등 EU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량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해당 유제품을 재고로 보관하는 업체에게 보관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PSA를 통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5~6개월 동안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격리가 가능하다.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줄여서 장기적으로 다시 시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며, 신청기간은 올해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PSA는 시장격리를 위해 유제품을 보관하는 민간업체에게 보관비용을 보조하는데 치즈는 상한선이 10만 톤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에 EU 원유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했고, 원유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직전인 4월에는 원유가격이 전년동기대비 $\Delta 0.5\%$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EU회원국으로 부터 탈지분유 4800톤, 버터 3만 1000톤, 치즈 3만 8000톤의 PSA 신청이 들어왔으며, 아일랜드·스페인·

이탈리아·스웨덴·영국 5개국은 이미 국가별 치즈 PSA 한도에 도달했다고 한다.

(2) 유연한 시장지원사업 운용(Flexibility for market support programmes)

와인·청과물·올리브오일·양봉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지원사업과 우유·유제품 및 청과물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청과물은 사업 실시 중에 사업변경이나 일시중단에 대한 행정조치가 완화된다. 또한 학교급식사업은 학교의 휴교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집행액에 관계없이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3) EU 경쟁법 적용제외(Temporary derogation from EU competition rules)

원유·화훼·가공용감자를 대상으로 공통시장조직규칙(Common Markets Organization Regulation) 제222조에 의거 EU경쟁법의 일부 적용제외가 인정되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장안정대책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해 생산자나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시장격리, 무상배부, 공동판매촉진, 계획생산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원유부문은 공동으로 원유생산을 조절할 수 있고, 꽃·감자는 공동으로 시장에서 제품을 철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동보관도 허용된다.

EU경쟁법 예외 적용기간은 6개월이며, 꽃·가공용감자는 5월 5일부터, 원유는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자율적인 생산조절 대책과 그 결과를 회원국에 보고하고, 회원국은 EU위원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EU위원회는 소비자가격을 비롯하여 EU 단일시장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감시한다. 일부에서 요구했던 원유생산감축 장려금 지급은 이번 추가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프랑스는 원유 생산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총 1000만 유로(약 140억원)를 지급하는 독자적인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2~5%의 생산량을 줄인 낙농가에게 감축량 11 당 0.32유로(약 446원)를 지급했다. 앞으로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추가대책에 대한 낙농가의 평가

이번에 발표한 추가대책 중 특히 PSA(민간재고보조)에 대한 낙농가의 평가는 냉혹했다. EMB는 'PSA로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은 원유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3000만 유로(약 418억원)의 보조금을 PSA보다 생산량을 감축한 낙농가에게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부산갈매기, 'EU위원회의 코로나19 추가대책 특징' (2020년 8월 11일), (<https://blog.naver.com/jtriple00/222057645941>)

- 원문출처: 일본 중앙낙농회의 '중낙정보(2020.7월호)'

2. (2020년 10월 29일) EU 낙농업계, 코로나 계기로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프로젝트 추진-식품공급망 혼란 반복 방지위해 업계 공동 디지털 시스템 구축

올해 코로나 19에 낙농공급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은 EU 낙농업계가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유럽 전역에 코로나 19가 크게 확산되면서, 봉쇄조치로 호텔 식당 등 식품서비스업이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지 못해 낙농가들이 원유를 폐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급격한 수요 변화시 낙농가와 가공업자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러한 상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지원으로 영국 레딩대, 이탈리아 카톨리카 대학, 이탈리아 축산농가협회와 농업 연구센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낙농업계의 코로나 19 피해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해,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낙농업계가 수요 변동 등의 문제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식품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종사자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 재발 시, 문제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EU 낙농업계, 코로나 계기로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29일자

- 원문출처: dairyreporter.com, 10월 22일자

3. (2020년 10월 29일) 유럽연합 밀,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유럽산 밀 선물은 수요일 치솟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세계 시장을 적자로 몰아넣었고, 주요 산지에서의 일부 환영할 만한 강우량에 의해 압박을 받아 2주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넥스트의 12월 밀링밀 BL2Z0은 10월 14일 이후 가장 낮은 톤당 204.25유로로 1.2% 하락했다.

그러나 무역업자들은 곡물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일 수 있지만, 3월 때도 때 상승했으며, 러시아 등 일부 주요 수출시장의 높은 가격이 일부 지지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경쟁 수출업체들, 특히 러시아에서 가격이 높게 유지됨

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내에 더 많은 수출판매가 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 독일 무역업자는 “러시아는 여전히 비싸 보이고 독일, 발트해 국가, 폴란드는 몇 주 안에 새로운 수출 판매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지난 몇 달 동안 대량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수출 물량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올해 7~12월 사이에 100만~12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의 예상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판매자들은 때때로 파리 가격 하락에 직면하여 거래하기를 꺼렸다.

또 다른 거래자는 “지난 며칠간 유로넥스트의 급격한 하락에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있다” 고 말했다. “러시아의 건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시장의 시각인 것 같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falls to two-week low on global coronavirus gloom(유럽연합 밀은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로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0월 29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7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4. (2020년 11월 1일) 코로나 2차 대확산에 패닉 빠진 유럽... 식료품·의료대란. 신규 확진자 1주간 150만 명 늘어, 집중치료실 점유율 17일 만에 2배 ↑, 英, 佛·獨 이어 4주간 봉쇄 조치, 벨기에·포르투갈 ‘고강도 이동제한’, 슈퍼마켓 장사진... 화장지 등 동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 거리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텅 비어 있다. 멈출 줄 모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유럽이 혼돈에 빠졌다. 각국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대란이 예고되고, 잇단 2차 봉쇄령에 불안해진 시민들이 사재기를 시작해 식료품·생활필수품 등 일부 품목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한스 클루게 유럽국장은 최근 유럽 보건장관들과의 긴급회의에서 “유럽이 다시 이번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진원지가 됐다” 면서 최근 일주간 유럽의 신규확진자가 약 150만명 늘어 팬데믹에 들어선 이후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조만간 의료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집중치료실이 빠르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집계에 따르면 유럽 내 병원 집중치료실 점유율은 17일 만에 2배로 치솟았다. AFP통신이 52개 유럽 국가 중 35개국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환자는 13만 5,000명에 달한다. 불과 1주 전까지만 해도 유럽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만 명에 못 미쳤다.

영국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2만 명대로 늘고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프랑스, 독일에 이어 이날 잉글랜드 전역에 봉쇄조치(lockdown)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긴급 내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4주간의 봉쇄조치를 발표하며, “지금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써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자 믿음”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비필수 업종인 가게, 펍, 식당 등의 영업을 중단된다.

벨기에도 1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비필수 업종 가게의 영업을 중단하는 봉쇄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우리 나라는 보건 비상사태인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엄격한 봉쇄에 다시 들어갈 것” 이라며, “이는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수도 리스본을 포함, 전체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지역 121곳에 비필수적 이동을 제한하는 부분 봉쇄령을 내렸다. 준봉쇄' 수준의 고강도 제한 조치에도 30일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선 이탈리아 역시 전역으로 봉쇄령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오른쪽)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화상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였다. 잇단 재봉쇄에 유럽 시민들은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슈퍼마켓은 물건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화장지 등 일부 품목은 이미 동나기 시작했다. 1차 봉쇄 때 장기간 외출하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이발소나 미용실 예약을 잡는 한편,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때문에 투입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출처) 세계일보, ‘코로나 2차 대확산에 패닉 빠진 유럽… 식료품·의료대란’, 2020년 11월 1일자 기사

5. (2020년 11월 9일)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EU 농업에 미치는 영향-코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연합 농업 지원금 증가 상황에서 관세부과 갈등 등 더욱 심화 가능성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EU와 미국 간 전반적인 무역 및 농업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대서양 연안 국가 간의 무역(transatlantic trade) 침체가 발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 탈퇴, OECD 주도의 관세 제도 재편에 대한 반대 등의 행보를 보여 왔으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유지해오던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무역정책에서 일국주의(unilateralism) 무역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바이든 후보의 집권 이후에는 전반적인 무역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와 달리 WTO의 개혁 등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협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온 관세 부과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와인과 치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유럽연합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2020년 11월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번 관세 부과는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서 16년간 지속되어 온 에어버스-보잉 간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 관세 부과 조치는 와인과 치즈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에어버스사의 비행기를 포함하며, 이는 유럽연합과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의 1.5%(75억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에 대한 관세 부과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Politico는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애국주의(patriotism)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정책은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업부문의 적자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한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시행하고자 하는 탄소 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을 통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0년 7월에 미국은 프랑스가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할 시, 25%의 추가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물품 목록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프랑스는 관세 부과 계획을 2021년 1월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WSJ은 미국 농부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환경 보호를 위한 제약 증가와 세금의 상승을 예상하여, 유럽연합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파리 기후협약에 미국이 다시 참여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WSJ의 보도(Farmers Stick With Trump, Despite Trade-War Pain, 2020.10.19.)와 Politico의 보도(Coronavirus reheats Europe's food nationalism)를 참고하기 바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EU 농업에 미치는 영향,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4, 2020년 11월 9일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HK3VGNFP/(20201109)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라보뱅크, “Trump versus Biden and the transatlantic trade relationship” (2020.10.29.), (<https://economics.rabobank.com/>)

6. (2020년 11월 13일) 유럽연합은 락다운으로 수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곡물 공급 부족에 직면

Strategie Grains는 “코로나바이러스 봉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유럽 내 곡물 공급은 중국으로의 보리 수출이 계속되고 밀이 수입 옥수수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월간 보고서에서, Strategie Grains는 실망스러운 우크라이나 수확과 높은 중국 수요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을 이유로 2020/21년 유럽연합과 영국의 옥수수 수입 전망치를 거의 200만 톤 낮춘 1,700만 톤 미만으로 전망했다.

Strategie Grains는 “밀링밀에 대한 수요 전망치는 90만 톤 감소했고 맥주 성분인 맥아에 대한 보리 사용량은 60만 톤 감소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보리 시장이 압박을 받으며, Strategie Grains는 2020/21년 유럽연합의 보리 수출 전망치를 40만 톤 늘린 740만 톤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보리 흑자가 있었지만 이는 아직 시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밀 수출 전망치는 10월 2,500만 톤에서 2,43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유럽연합 밀 가격은 유럽의 적절한 재고를 보존하기 위해 해외에서 계속 경쟁력을 잃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rategie Grains는 유럽연합 밀 파종이 반등하고 내년 러시아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수요가 다음 수확이 오는 2021/22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부추겨 공급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facing tight grain supply despite lockdown demand drag(유럽연합은 락다운으로 수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곡물 공급 부족에 직면)’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13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0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7. (2020년 11월 18일) EU위원회 코로나19 사태 이후 푸드체인과 학교의 휴교조치로 가정조리용 제품 수요 증가, 후레시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으로 이동

유제품시장 예상보다 빠른 회복, 반면 불확실성 지적도 많아

EU위원회가 설치한 ‘유제품시장 관측사이트(MMO, Milk Market Observatory)’의 경제위원회 9월 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보고서에는 ‘유제품시장이 코로나 19 사태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2020년은 전세계 원유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밸런스가 무너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EU(27개국)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유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MMO 경제위원회 제35차 회의는 COPA-COGECA(EU농업조직위원회·농업협동조합위원회), CEJA(EU청년농업자협의회), EMB(EU낙농위원회), ECVV(European Coordination Via Campesina), EDA(EU유업협회), Eucolait(EU유제품수출입·판매업체연합), Eurocommerce(EU상공회의소) 등의 밀크서플라이체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회의로 지난 9월 25일 개최되었다.

7월까지 집유량 전년동기대비 2% 증가

EU(27개국) 집유량은 7월에만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했고, 7월까지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2% 증가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의 생산량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생산량이 전년동월보다 낮았던 회원국은 3곳 뿐이었다. 올해 7월까지 집유량 증가에 따라 전지분유 4.7%, 음용유 3.7%, 치즈 2.0%, 탈지분유 1.9%, 버터 1.6% 등 모든 유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올해 7월 EU 평균 원유가격은 1kg당 32.84유로센트(약 431원)로 집계되었다. 작년 7월보다 2.9% 하락했지만, 과거 5년간 평균보다는 4.7%가 높았다. 올해 8월 추정치를 보면 kg당 32.91유로센트(약 432원)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

버터가격은 올해 초에 100kg당 368EUR에서 5월에는 281EUR로 하락한 후에 350EUR까지 거의 회복했다. 1년전 보다는 4% 하락했다. 6월 초순 이후 EU산 탈지분유가격은 100kg당 207~217EUR(kg당 2716~3556원)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지금은 214EUR(약 3162원)으로 전년보다 2% 가량 하락했다.

탈지분유·버터 평소 재고량 유지

EU(27개국)와 영국의 유제품 민간재고는 잔여접근법(생산량+수입량-국내 소비량-수출량)에 의한 산출결과 탈지분유는 약 12만 톤으로 평소 수준이었고, 버터도 7월말 현재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 EU역외로의 수출증가와 소매판매가 수급균형을 지탱했다. 치즈 재고량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약간 많았는데, 여름철 외식산업 회복, 강한 소매수요와 수출이 계속되면서 7월에는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EU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원유생산량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올해 7월까지 주요 수출국(EU 27개국,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에서는 원유생산이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고, 뉴질랜드와 영국은 각각 △0.1%, △0.7% 감소했다.

EU 단기전망은 원유량 증가와 사육두수 감소폭 축소에 따라 2020년 집유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계속해서 견조(堅調)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음용유 생산량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수요와 수출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멈췄다. 치즈 소비량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EU산 치즈 수출처 2위로 올라서

세계무역과 EU의 수출은 대단히 호조이다. 수입증가는 소비증가 또는 비축전략이나, 식량안보 차원의 우려를 반영했는지도 모른다. EU산 치즈의 일본 수출량은 올해 1~7월에 12% 증가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EU의 2위 수출처가 되었다. EU의 유제품 수출은 US달러에 대한 유로화 상승으로 현재 좀 더 어려워진 상태다. EU의 유제품 소비는 가공용 유제품 이용에서 다이나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치즈, 버터, 크림의 경

우 2009~2019년에 1/3 이상 증가했음). 유청,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의 분말유제품 이
용도 증가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긴 제품으로 소비패턴 변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푸드체인과 학교의 휴교조치로 가정조리용 제품의 수요가 증
가하면서 후레시한 제품에서 유통기한이 긴 제품으로 이동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가
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유기농 유제품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낮은 실정이다.

유제품시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
게 회복했다. 2020년은 전세계 원유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경기후퇴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소비자의 행동, 자신,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와
영국 간의 무역에 혼란을 가져와 유제품가격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부산갈매기, ‘EU위원회 ‘유제품시장 관측사이트’ 9월 회의
결과’ (2020년 11월 18일), (<https://blog.naver.com/jtriple00/222147621665>)
- 원문출처: 일본낙농유업협회 ‘J-MILK INTELLIGENCE(2020.10.09.)’

[프랑스]

1. (2020년 11월 4일) 전 주 러시아 미국 밀 성장 지역 비 소식과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 치 재개에 대한 투자자 우려 압력 불구, 파리 밀 시장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안정

유로넥스트 밀은 화요일 거래자들이 유로화의 급등과 작물 조건 개선에 대하여 시카
고의 견고한 추세와 활발한 국제 수요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 12월 밀링밀
BL2Z0은 0.25유로(0.1%) 상승한 톤당 205.25유로(240.68달러)에 거래됐다. 이에 앞서 현
물계약은 미국선물의 하루아침에 상승한 207.75유로로 1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시카고 밀 랠리가 주춤하고 달러 대비 유로화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익이
줄어들었다.

10월에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밀 시장은 지난 주 러시아와 미국에서 건조
하게 성장 중인 지역에 대한 비 소식과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조치 재개에 대한 투자
자들의 우려로 압력을 받았다. 무역업자는 이제 시장이 미국에서 옥수수과 대두 수확,
호주와 아르헨티나에서 밀 수확, 그리고 겨울 이전의 미국과 러시아 밀 상태 등을 더
명확하게 그려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도전자 조 바이든의 치열한 유세 끝에 치러진 화요일 미국
대선의 여파로 이번 주에도 일부 변동성이 예상됐다. 수입국들의 최근 입찰자들은 튀
니지가 5만 톤을 예약하고 파키스탄이 32만 톤을 입찰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꾸준한

국제 밀 수요를 강조했다.

Refinitiv 선적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밀 수출이 10월에 반등하여 적어도 10년 만에 중국으로의 최대 월간 선적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과 10월에 알제리로 사실상 프랑스산 밀이 선적되지 않은 후, 선적 스케줄은 약 6만 톤이 11월 초에 선적될 예정임을 보여주었다.

(\$1 = 0.8528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aris wheat flat as market seeks fresh direction(파리 밀은 시장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에 따라 안정)’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4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8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11월 18일) FranceAgriMer, EU지역 외 연질밀 수출 전망 상향조정. 코로나 19로 연말연시 앞두고 프랑스산 봉쇄조치 재개되면서 맥주육류 등 소비가 우려

프랑스 농수축산사무국(FranceAgriMer)은 화요일 2020/21년 유럽연합 외 프랑스산 연질밀 수출 전망치를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해 올 시즌 프랑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월간 수급 자료에서 FranceAgriMer는 7~6월 중 유럽연합과 영국 외에서의 연질밀 수출량을 지난달 670만 톤에서 685만 톤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2019/20년 시즌에 예상된 기록인 1,346만 톤보다 49% 낮은 수치로 악천후로 인해 올해 프랑스 수확량이 급감했음을 반영한다.

FranceAgriMer의 곡물부 차장 Marion Duval은 기자들에게 “수출 모멘텀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은 시즌 전반기에 매우 적극적인 바이어였다.” 프랑스는 이미 7월부터 밀 100만 톤을 중국에 출하했으며 일부 무역상들은 본격적인 계절에 걸쳐 수출이 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ranceAgriMer 유럽연합 내 예상 연질밀 수출량은 8만 톤 감소했고, 동물 사료 제조업체의 내수 수요는 옥수수 대비 경쟁력 증가로 10만 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정으로 FranceAgriMer는 2020/21년 말 예상 연질밀 재고량을 지난달 260만 톤에서 250만 톤으로 줄였다.

FranceAgriMer는 유럽연합 내 옥수수 수출 전망을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동물 사료 사용과 전분 수요의 감소로 옥수수 재고량은 220만 톤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보리의 경우 국내 맥아 사용량 및 유럽연합 내 수출에 대한 공급과 감소에 대한 상향 조정을 반영해 2020/21년 재고량 전망을 지난달 10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높였다.

FranceAgriMer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프랑스산 봉쇄조치가 재개되면서 곡물을 사용하는 맥주나 육류 등의 제품 소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ranceAgriMer raises non-EU soft wheat export outlook again(FranceAgriMer, 비 유럽연합 연질밀 수출 전망 다시 상향조정)’ 해외 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18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1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영국]

1. (2020년 9월 18일) 영국 정부, 외식 지원을 통해 1억 끼를 넘는 이용이 있었다고 발표

영국 정부는 9월 4일, 8월에 실시한 식대의 반액을 보조하는 외식 지원책(Eat Out to Help Out Scheme)이 1억 끼 이상이 이용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외식 지원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확대의 영향을 받은 음식 업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8월 3일부터 8월 31일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지원 방안에 참여하는 식당 등에서 가진 음식(포장이나 알코올 음료를 제외)
- 보조율: 대상이 되는 식대 최대 50%(1번의 식사를 한 명당 상한 10파운드(142엔: 1파운드=142엔))
- 보조 횟수: 기간이면 몇 번이라도 이용 가능
- 최저 이용 금액 등 제한: 없음
- 보조의 구조: 고객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자동적으로 밥값에서 할인되고 식당 측이 밥값에서 할인 금액을 정부에 청구했다

리시·수지 너클 재무 장관은 이 지원책은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는 180만 명의 생활을 지키고, COVID-19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주가 지날수록 이용이 증가하고 8월 말까지 레스토랑 예약 수가 대폭 증가했다. 8월 31일까지 당초 예상을 웃도는 총 1억 끼를 넘는 이용이 있었다. 지원책에 참가한 8만 4700채의 레스토랑에서 할인 금액에 대한 보조 신청 건수는 13만 건으로 그 금액은 5억 2,200만 파운드(741억 2,400만 엔)이었다.

영국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외식함으로써 경제를 북돋우고 더 많은 일자리가 확보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당 등에서 보조 신청은 9월 말까지 받고 있는 만큼 이들 숫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리시·수지 너클 재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당초부터 일자리를 지킬 우리의 사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례 없는 창조적인 대처에 과감히 도전할 필요가 있었다.
- 이번의 데이터는 외식 지원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였다. 저는 외식 지원 방안을 받아들이고 경기 회복을 밀어 준 레스토랑 관계자나 식사를 나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 이 지원책은 ‘고용 계획’의 일부일 뿐 우리는 다시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창출한다.

또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식당의 예약은 전년 같은 요일과 비교하여 8월 전체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평균 53% 증가했다. 7월의 레스토랑 예약은 전년과 비교하여, 월요일부터 수요일의 평균에서 54% 감소했다. 지원책의 마지막 날인 8월 31일에는 전년 이날과 비교하여 예약 건수는 216% 증가했다. 또 지원 방안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하루 화요일 레스토랑 예약은 2019년 같은 조건의 날과 비교하여 2% 증가하고 수요를 높이고 있는 것이 초기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원책은 영국 전체에서 실시되었으며, 1주째에 함께 1,050만 끼, 2주 만에 3,500만 끼 3주 만에 6,400만 끼 식사와 이용은 증가하고, 8월 31일까지 총 1억 끼를 이용하였다.

한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실시 전에는 외식을 할 수 있는 부자들에 대한 포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예측이나 정크 푸드를 장려하게 된다는 지적도 들렸다. 또, 실시 기간 중에는 소셜 디스턴스의 필요성과 수요 증가에 대처할 점원에 대한 클레임의 증가를 원인으로 한 외식 지원책에 참가 취소나 주 초에 내객이 집중되는 것에서 주말 거래의 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令和2年9月18日付)英国政府, 外食支援策により1億食を超える利用があったと発表,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年 11月號,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19.html)

2. (2020년 1월 9일) 英, 코로나 극복 위해 20년 만에 TV 우유 광고.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활용 우유 홍보...캠페인 기간 중 우유판매 11천 톤 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유제품 소비를 만회코자 영국 정부와 낙농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Milk Your Moments 캠페인이 상황리에 마무리됐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이 가장 심했던 5월 중순부터 12주간 진행됐던 이 캠페인은 우유와 유제품이 항상 우리 곁에서 생활의 일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테마로 영상물을 제작해 옥외광고판 등 다양

한 SNS 매체를 통해 배포했고, 특히 20년 만에 처음으로 TV로도 광고를 방영했다.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최근 발표한 캠페인 결과 평가에 의하면, 주요 타겟층들이 낙농산업과 유제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식단에 유제품을 추가하는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21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계획에 없던 우유를 구매해 약 1만 1천여 톤의 우유가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행사로 진행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 모금에서도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 원)가 모금되는 성과를 거뒀다.

Dairy UK의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낙농산업이 항상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유제품 판매증가는 이번 캠페인의 주요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英, 코로나 극복 위해 20년 만에 TV 우유 광고’,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9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11월 2일

[아일랜드]

1. (2020년 11월 6일) 아일랜드, 코로나 이후 25%가 유제품 소비 늘려. 젊은 세대, 유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 높아져...환경 영향에 대한 인식은 개선 필요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침체와 급격한 소비패턴 변화로 올해 세계 낙농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아일랜드에서는 상당수의 소비자가 유제품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국립유제품자문위원회(NDC) 회장 조 카바나크는 최근 아일랜드 농업저널과 인터뷰에서 자체 조사결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소비자의 25%가 유제품 소비를 늘렸고, 특히 35세 이하의 경우는 40%가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것은 코로나 이후 유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Z세대(16-23세)의 경우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80%, 밀레니얼세대(24-39세)도 66%인 것으로 나와 매우 놀랐다” 고 말했다.

반면, 낙농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높았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아일랜드, 코로나 이후 25%가 유제품 소비 늘려 - NDC 소비동향조사’,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6일자

- 원문출처: farmersjournal.ie, 10월 29일자

[우크라이나]

1. (2020년 10월 30일) 우크라이나, 코로나19로 제한하였던 밀 수출 킬터량 57% 소진

우크라이나는 2020/21년산 밀 수출 킬터를 1,750만 톤 이내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출된 물량은 1,000만 톤 수준으로 전체 킬터량의 57% 수준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100만 톤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며, 300만 톤의 밀이 이미 계약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컨설팅업체 APK-Inform은 수입업체의 수요 확대와 겨울철 밀 파종 속도가 느려지면서 우크라이나 밀 제분 가격이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톤당 255달러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물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20년 시즌에는 약 5,7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21년 시즌에는 건조한 날씨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수출량이 4,740만 톤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곡물관측」, 2020년 11월호, P.19
(aglook.krei.re.kr)

- 원문출처: 로이터(Reuters), 2020.10.26.

2. (2020년 11월 3일) 우크라이나 농업부, 옥수수, 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시작된 곡물 수출킬터 재검토 없기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옥수수 출하량이 줄면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어지는 시즌에 현재까지 15.8% 감소한 1,650만 톤을 기록했다고 농업부가 밝혔다. 무역업자들은 작년 같은 기간에 440만 톤의 옥수수를 판매한 것에 비해 250만 톤의 옥수수를 판매했다.

밀 수출은 약 1,100만 톤에서 1,060만 톤으로 감소했다. 곡물상들과 정부는 현지의 수요를 보장하고 수출 제한을 막기 위해 이번 계절에 수출할 수 있는 밀의 양이 1,750만 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농업부는 지난 주 월요일 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킬터를 재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무역업자들이 2020/21년 시즌까지 킬터의 57% 이상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세계 곡물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는 2019/20년 시즌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약 5,700만 톤의 곡물을 판매했다. 정부는 2020/21년에는 수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이 4,740만 톤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업부는 악천후로 인해 2020년 곡물 수확량이 2019년 기록인 7,510만 톤에서 약 6,800만 톤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kraine’ s grain exports down 15.8% so far in 2020/21 season(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2020/21년 시즌 현재까지 15.8% 감소)’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3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8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크로아티아]

1. (2020년 11월 3일) 크로아티아 농림부, 2020년 ‘국가 와인 산업 지원프로그램’ 일환으로 국내 와인너리 업계에 1,010만 유로 지원했다고 발표

크로아티아 농림부가 2020년에 ‘국가 와인 산업 지원프로그램(National Wine Aid Programme)’ 의 일환으로 국내 와인너리 업계에 1,010만 유로(한화 약 135억 8,672만 원)를 지원했다고 발표하였다. 와인너리 지원 정책의 절차와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수혜 농가 수 또한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는 포도밭 개보수 정책의 지원금 지급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5%로 높였으며, 향후 3년 동안 포도밭 농가를 대상으로 보수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와인 산업 지원 정책의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정부는 국내 와인 산업 부흥을 위해 5년 동안 유럽기금(European Fund)의 지원금을 활용해 연간 1,100만 유로(한화 약 147억 9,742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농촌 지역의 관광업을 활성화 하고자 와인 산업을 관광업과 결합한 새로운 관광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관광청은 이 같은 시도가 지역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함. 실제로 2020년 1~8월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을 이용한 관광객의 총 숙박 일수는 6만 6,300여 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코로나19 해외 농업 대응 현황 및 정책 동향 [43]’ 2020년 11월 3일
- 원문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0.10.21.), Total Croatia News, Croatia Week 등

IV. 오세아니아

[호주]

1. (2020년 1월 12일) COVID-19 대유행과 봉쇄로 경제활동에 큰 혼란으로 호주의 GrainCorp은 연간 손실 감소, 2021년 수익 증가 전망

GrainCorp GNC.AX는 호주의 대량 곡물 취급업자의 구조조정 노력과 오일시드 분쇄량이 마진에 도움이 되어 내년 겨울 작황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2020년 연간 손실이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동부 전역의 농장을 황폐화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킨 3년간의 가뭄과 싸운 후, 더 나은 강우량과 곡물 계약의 구조조정이 상반기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GrainCorp의 운명은 올해 초 바뀌었다.

COVID-19 대유행과 봉쇄로 경제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한 반면, 식량과 농업은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어 호주에 분사를 둔 이 회사가 침체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왔다. GrainCorp는 동부 연안의 겨울 작황 증가와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혜로 2021 회계연도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농업 경영에서 재배 조건과 지금까지 받은 곡물의 양에 따라 “매우 강한” 2020/21년 겨울 작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GrainCorp는 강력한 오일시드 분쇄 마진 또한 이 회사의 가공 부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9월 30일에 마감된 연도의 세금을 제한 후 순손실은 1,600만 호주달러(1,165만 달러)로 호주 동부의 가뭄 장기화로 인한 지난해 1억 5,800만 호주달러보다 작았다.

(\$1 = 1.3731 호주달러)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ustralia’ s GrainCorp annual loss shrinks, sees growth in 2021 earnings(호주의 GrainCorp은 연간 손실 감소, 2021년 수익 증가 전망)’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12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597/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0년 11월 16일) 호주 업계, 국가단위 질병 방역 강화 촉구. 단 하나의 질병으로 농업 전체가 초토화 가능...정부의 관련 예산 미편성 질책

호주 농업인연합회(ANFF)가 정부에 전염성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가단위 질병방역 시스템(Biosecurity System)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가 호주 농업이 전염성 질병과 해충 침입 증가로 향후 10년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지난 10월 연방 정부가 내년 예산에 국가 질병방역시스템(National biosecurity system) 강화를 위한 예산은 물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부과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토니 마하르 ANFF 회장은 “국가단위의 강력한 질병방역 시스템은 호주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축산부문을 외래 해충과 질병으로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라고 하고, “올해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단 하나의 해충이나 질병도 농축산업 전체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만큼 미래 국가 방역 시스템은 시스템 간 연결과 통합을 바탕으로 데이터 및 정보 공유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세계 농축산 부분은 코로나19 에 따른 경제적 피해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전염성 가축질병과 밤나방(Fall Army Worm), 카프라 딱정벌레(Khapra beetle), 갈색무늬노린재(Brown marmorated stink bug) 등 외래 해충에 의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호주에서 차단된 생물학적 위협 요소 역시 50%가까이 증가하는 등 생물학적 질병의 위협과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호주 업계, 국가단위 질병 방역 강화 촉구 - 단 하나의 질병으로 농업 전체가 초토화 가능...정부의 관련 예산 미편성 질책-’,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6일자
- 원문출처: thedairysite.com, 11월 9일자

3. (2020년 11월 17일) 中,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싼 무역갈등으로 호주산 전지분유에 긴급수입제한조치. 할당물량 초과분에 10% 추가 부과

올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전지분유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싼 양국간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2020년 중국에 판매한 전지분유 수출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호주산 분유의 저율관세 할당물량은 22,335톤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19,726톤(88.3%)을 수출했으며, 10월 말 또는 11월 초 할당량이 초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2015년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ChAFTA)이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전지분유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이번 달부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초과되는 수입 물량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 일자 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 들어 호주와의 관계 악화로 와인, 소고기 등 호주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中, 호주산 전지분유에 긴급수입제한조치-
할당물량 초과분에 10% 추가 부과-’,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7일자

- 원문출처: abc.net.au, 11월 13일자

[뉴질랜드]

1. (2020년 11월 16일) 중국 “수입 쇠고기에 코로나19” 주장에 뉴질랜드 “진상 규명” 하기로 발표

중국 당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쇠고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자 뉴질랜드가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해당 쇠고기가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도 경위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당국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쇠고기 제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을 뿐,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뉴질랜드 언론들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 당국이 지난 주말 브라질과 볼리비아, 뉴질랜드가 원산지인 쇠고기와 내장 제품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냉동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냉동제품 포장에서 코로나19가 옮겨질 위험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SBS 뉴스, ‘중국 “수입 쇠고기에 코로나19” 주장에 뉴질랜드 “진상 규명”,
2020년 11월 16일자 뉴스

- 원문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5296&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V. 아시아

[중국]

1. (2020년 11월 9일) 中, 코로나19 계기로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현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가공식품 관련 46개 조항 제개정 계획

코로나19가 야생동물 소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내 식품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2020 국가 식품안전 전략계획(2020 Food Safety National Standards Project Strategy)를 새롭게 마련했다.

중국 국가건강위원회(CNHC)가 식품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국가계획(national initiative)은 현행 식품안전기준 중 영양성분 및 가공식품 등과 관련해 28개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 18가지를 신설하는 등, 총 46개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이중 12개는 영양성분 및 특별식에 관한 조항이고, 가공 식품 관련 4개 조항, 식품 첨가물 14개 조항 그리고 나머지는 식품 검사 및 식품오염 분야로 알려졌다.

영양성분(nutrition) 및 특별식(special dietary foods) 분야는 식품의 영양 강화 성분인 해조류 추출 요오드, 락토페린(초유에 많이 들어있는 항균물질), 1,3-Dioleoyl-2-Palmitoyl Triglyceride(모유 지방 대체 중성지방) 등에 대한 기준 강화와 알츠하이머 환자용 대체영양식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 신설이 포함된다. 가공식품(processed foods) 분야는 빵류와 캔류 등에 대한 기준강화와 건조과일 및 야채 등에 대한 기준 신설, 소금, 설탕, 오일 함량 기준 대폭 강화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은 캔류 등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영양건강] 中, 코로나19 계기로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9일자
- 원문출처: foodnavigator.com, 11월 3일

[일본]

1. (2020년 11월 2일) 일본, 미국 대선 후보자 농업정책 비교(농업 보호, 수출)

미국 최대 농업단체 AFBF(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게 무역정책 등 12항목의 질문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2020년 9월 9일 공개하였다. 이에 대한 두 후보의 대립점 등을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에서 정리하였다.

[국내 농업 활성화] 두 후보의 응답 중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국내 식량 공급시스템 활성화 방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농가들에게 코로나19 보조금(160억 달러, 4월 17일 공표)을 지원하고, 농산물을 매입(30억 달러)하여 취약계층에게 식품 꾸러미(Food Box)를 지급하는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바이든 후보) 농업에 신규 진입 및 농업 상속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농가대책, 농지 보전 투자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개발 및 저리 융자, 신제품개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정밀농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농업의 입지 향상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전망을 개척해가겠다고 하였다. 바이든은 농업 관련 기업의 과점화를 저지하여 중소기업의 농업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흑인 농가에 대한 농무부의 차별적인 농업정책을 폐지하는 등 농업정책에 있어 다양성을 중시하는 의사를 밝혔다.

[에너지(옥수수 에탄올)] 중서부 지역 농가가 기대하는 옥수수 에탄올 생산 장려책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에탄올 15%의 혼합휘발유(E-15)의 하계판매금지 철폐를 통해 연간 판매를 실현하였으며, 중국과 브라질 등에 에탄올 수출을 확대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후보) 정유기업에 대한 에탄올 혼합의무 면제로 인해 옥수수 농가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비판하고, 바이오에탄올 등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과 기후 변화 대책에 가장 중요하다며 청정연료 연구개발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수출대책] 농수산물 수출대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통한 수출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바이든 후보는 종합적인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농수산물 수출대책에 대해 무역협상을 통한 수출 확대와 실적을 중시하고, 미국에 불리한 무역협정 탈퇴 및 한국, 일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 신협정(USMCA) 체결 및 중국에 대한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실적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중국과 무역협상 진전과 더불어 일본 및 아시아 국가와 협상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맞서 미국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통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지구적인 과잉생산과 외국 국영기업 등의 문제가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해외이전 및 외국 기업의 생산위

탁으로 인한 고용 상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두 후보는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의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 강도 높은 불법 이민대책을 시행하면서 합법적인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농가를 위해 H-2A 비자 발급을 확대할 것이고, 재선될 경우 외국인 농업노동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에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바이든 후보) 미국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민노동자는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과거 농업노동 실적을 기반으로 이민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및 시민권 취득으로 연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지지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대선 후보자 농업정책 비교(농업 보호, 수출),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3, 2020년 11월 2일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AGV9OUYS/(20201102)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農政： 薄井寛: 20大統領選と米国農業”, (2020.9.23.)(<https://www.jacom.or.jp/>)

2. (2020년 11월 17일) 일본, 코로나19 확산에 외식 장려정책 수정 검토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7일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950명이 새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2만358명으로 늘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이달 9일(781명)에 이어 일주일만이다. 하지만 요일별 편차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 월요일에는 확진자가 적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6일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올해 8월 3일(965명)에 이어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았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누적 확진자는 1만 320명이나 늘었다. 직전 일주일에는 6천 744명이 늘었는데, 증가 폭이 확연하게 커졌다.

16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천 474명 수준으로 직전 일주일의 하루 평균(약 963명)보다 511명 정도(약 53%) 정도 확대했다.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언한 올해 4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7~8월에 이어 제3차 확산기를 맞고 있다.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식 장려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외식비의 일부를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하는 정책인 ‘고투 이트’(Go To Eat)의 적용 대상에서 5명 이상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를 제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감염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지방창생 임시교부금 500억 엔(약 5천 295억 원)을 활용해 영업을 단축한 업체에 월 20만~30만 엔(약 212만~31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출처) 한국경제TV, ‘일본, 코로나19 확산에 외식 장려정책 수정 검토’, 2020년 11월 17일 뉴스

- 원문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75296&plink=ORI&cooper=NAVER

[말레이시아]

1. (2020년 11월 6일) 말레이시아 팜유 재고 10월 강우와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으로 생산량 급증, 인도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로 대두 선물가격 3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2.1%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남미 날씨가 공급량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오일시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주간 수출량은 150만 톤으로 지난주보다 6%, 이전 4주 평균보다 32% 줄었다. 말레이시아의 팜유 재고는 10월에 비오는 날씨와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는 반면, 인도의 축제 시즌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두 선물가격, 전 세계 공급 우려로 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해외곡물시장정보-세계곡물관련정보-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11월 6일 선물시장 현황」, 2020년 11월 6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587/page/1)

[예멘]

1. (2020년 10월 30일) 내전·코로나 겹쳐...예멘 남부, 어린이 10만 명 영양실조 극심

최근 중동 국가 예멘의 식량 부족 문제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어린이 한 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공동 조사 보고서를 통해 예멘 남부 지역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최소 10만 명이 급성 영

양실조 상태이며, 긴급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 한해 영양실조 아동 증가 폭은 15.5%로, 예멘 내전 시작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항구도시 호테이다에선 어린이 5명 중 1명 이상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멘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국민 80%가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 대유행과 전 세계 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구호품이 크게 줄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출처) KBS 뉴스, ‘[코로나19 국제뉴스] 내전·코로나 겹쳐…예멘 남부, 어린이 10만 명 영양실조 극심’, 2020년 10월 30일자 뉴스

VI. 아프리카

[아프리카]

1. (2020년 11월 16일) WFP 사무총장, “코로나19로 돈 번 이들 상대로 모금 운동 나설 것”. “국제 지원 없으면 내년 아프리카엔 인류 멸망 수준 기근” 언급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만큼 심각한 최악의 식량 위기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WFP본부에서 열린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올해보다 더욱 심한 최악의 식량위기가 내년에 닥쳐올 것”이라고 전했다.

WFP는 기아 퇴치를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식량원조기구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톰슨 피리 대변인은 “거의 모든 민항기 운항이 중단됐을 때 WFP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사였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WFP는 식량과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고 이를 나눠주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비즐리 사무총장의 경고다. 그는 통신에 “우리는 분쟁·재난지역과 난민 수용소에서 식량을 공급했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며 “내년에는 더 극심한 식량난과 기근이 닥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모든 국가의 경제가 악화됐다”며, “중·저소득층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당장 3~6개월 안에 20여 개국은 식량 부족 위험도가 급증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지원이 없으면 2021년에는 성경에 묘사된 인류 종말의 기근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WFP는 예멘·남수단·나이지리아 북동부 등은 오랜 분쟁으로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고, 아프가니스탄·카메룬·중앙아프리카 공화국·콩고 등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

WFP는 그러면서 기아 해소와 아동 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 150억 달러(약 16조 6,000억 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기부금을 확보한다면 세계적인 기근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 30개국은 기근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조만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일보, ‘[LIVE ISSUE 코로나19 확산 대비상] “국제 지원 없으면 내년 아프리카엔 인류 멸망 수준 기근”’, 2020년 11월 16일자 기사

- 원문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610390005497?did=NA>

[잠비아]

1. (2020년 11월 15일) 잠비아 이자 지급 못해...아프리카 첫 ‘코로나 국가부도’

잠비아가 유로본드 채권 중 하나에 대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친 뒤 아프리카에서 첫 국가부도를 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30억 달러(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유로본드 채권자들은 전날 잠비아 정부에 대한 이자지급 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불 만기가 지난 425만 달러(약 47억 원) 쿠폰에 대한 유예 기간도 지난 13일로 끝나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졌다. 브왈리아 응안두 잠비아 재무장관은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도 유로본드 쿠폰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비아는 팬데믹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채권단에 내년 4월까지 이자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그들은(채권단) 채무정지를 지지하거나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우리의 위태로운 입장에서 연체금을 축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단을 통해 채권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모종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당장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잠비아는 수년간 국제 자본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채권자들은 잠비아가 중국계 채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채무 상환을 유예해봤자 중국에만 이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채권단은 잠비아 대외채무의 4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다. 잠비아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막대한 규모의 대외채무 문제를 겪어왔다.

(출처) 연합뉴스, ‘잠비아 “이자 지급 못해”...아프리카 첫 ‘코로나 국가부도’, 2020년 11월 15일자 기사

- 원문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5000900099?input=1195m>

VII. 글로벌

1. (2020년 10월 30일) IDF, 세계 식량안보 현황, 코로나19 에 따른 영향, 영양실조 문제 대응정책 등 발표. 내년 UN 식품시스템 총회 준비도 만전

내년 UN 식품시스템 총회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논의에서 유제품의 역할과 입지를 다지기 위한 IDF(국제낙농연맹)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IDF는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해결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유제품의 역할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이해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주디스 브라이언스 회장을 필두로 T/F를 구성해 지난 10월 첫 회의를 가졌다. 또한 최근 낙농업계를 대표해 지난 13-15일 개최된 UN 식량안보위원회의 특별 화상회의에 참석해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UN 사무처장을 비롯해 세계 각국 수백 명의 정부 관료, 학계, 국제 UN 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식량안보 현황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그리고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정책 개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내년 식품시스템 총회와 함께 총회 보고를 위해 준비 중인 ‘세계 식품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IDF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우유와 유제품의 역할 강조를 위해 식품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과 UN 식품시스템 총회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IDF동향] IDF, 내년 UN 식품시스템 총회 준비 만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0월 30일자

- 원문출처: IDF 본부, 10월 20일자 / 10월 21일자

2. (2020년 10월 30일) 주요 곡물 선물가격,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으로 인한 우려로 촉발된 광범위한 상품 매도로 하락

밀 선물가격(▼0.8%)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8%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옥수수 와 대두 시장에서의 손실과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광범위한 상품 매도에 대한 압력으로 하락했다.

분석가들은 미국 평원의 건조한 지역에 내린 비로 농부들이 경질적색 겨울 밀 파종을 마치면서 가격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10월 22일 마감된 주의 미국 밀 수출량은 총 80만 3,200톤으로 시장 전망치 20만~70만 톤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옥수수 선물가격(▼0.7%)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감이 상품시장에서 더 많은 매도를 유발하면서 손실을 확대했다. 무역업자들은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상품 가격을 광범위하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는 멕시코 바이어들이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의 미국산 옥수수를 구매하기 위해 거래를 예약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2일 마감된 한 주 동안 미국 옥수수의 주간 수출량은 224만 4,000톤으로 70만~150만 톤의 추정치를 상회했다.

대두 선물가격(▼0.5%)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상품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며 하락했다.

미 농무부는 10월 22일 끝난 한 주 동안 미국 대두 수출량이 163만 톤으로 무역 기대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무역상들은 세계 최고의 대두 수출국인 브라질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비가 내려 농작물 재배 지역의 건조함이 완화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곡물 선물가격,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으로 인한 우려로 촉발된 광범위한 상품 매도로 하락’, 「해외곡물시장정보」, 선물시장동향,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2020년 10월 31일자 게재 (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571/page/1)

- 원문출처: 시카고선물거래소

3. (2020년 10월 30일) COVID-19와 더 큰 위협에 처한 인구의 경험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과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이 미국인들이 건강, 웰빙, 건강 형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며, 우선 순위를 정하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의 연속으로서, 새로운 세로방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COVID-19 유행병의 경험에 의해 건강관점과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2020년 여름 동안 조사된 COVID-19와 더 큰 위협 조사에서의 인구 경험 중 첫 번째 물결의 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소외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이 COVID-19 조사의 질문은 특히 전염병과 관련된 경험(예: 재정적, 신체적, 감정적), 응답자들이 전염병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건강 조치와 투자에 대한 응

답자들의 견해와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포함)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부문),

그리고 자유와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유행병적 견해와 대응 기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 저자들은 설문조사에 포함된 각 문항과 샘플의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한 최상위 결과를 요약한다. 부록은 일반 인구의 짧은 조사를 위한 최상위 결과를 제시한다.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COVID-19 and the Experiences of Populations at Greater Risk’, 「경제정책정보」-경제정책자료-국외연구자료-최신자료 (2020년 10월 30일), (http://eiec.kdi.re.kr/policy/internationalView.do?ac=0000154339&cat=epic3&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4. (2020년 11월 2일) 옥수수 가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여행을 제한하고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수요 억제 우려로 여전히 상한가 유지

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과 동일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에 가까운 계약 체결로 매도포지션에 무게를 두었고, 지연된 계약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중서부에서 수확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다음 주에 걸쳐 대체로 건조한 일기예보를 통해 농부들은 대부분 밭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옥수수 가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여행을 제한하고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여전히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상들이 중국의 매수 징후를 지켜보면서 수출 호조가 옥수수 가격을 뒷받침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밀 선물가격, 개선된 작물 날씨로 인해 하락’, 「해외곡물시장정보」, 선물시장동향, 해외곡물시장 일일시황, 2020년 11월 2일자 게재(http://www.krei.re.kr:18181/board/focus/view/wr_id/5574/page/1)

- 원문출처: 시카고선물거래소

5. (2020년 11월 4일) ASF · 코로나로 글로벌 돈육 시장 격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글로벌 돈육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농업부는 World Markets and Trade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아시아 국가들의 ASF 발생의 영향을 전망했다.

전 세계 돈육 생산량 약 1억 1천만 톤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는 중국은 2020년 돈육 생산량이 전년보다 25% 감소(약 1천 100만 톤)하고, 세계 6위 돈육 생산국 베트남은 11%, 필리핀은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중국의 돈육 수입량은 전년보다 35%늘어난 400만 톤, 베트남은 50%, 필리핀은 3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돈육 수출량은 700~800만 톤 규모에서 2019년에는 1천만 톤 규모로 늘어났고, 중국은 2019년에 부산물 포함해 300만 톤을 수입했다.

양돈장 줄도산 · 자돈가 폭락

중국은 생돈가격이 kg당 13위안에서 거의 3배에 가까운 38위안까지 폭등했고, 일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돈가를 급등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수출 경쟁력이 높은 미국의 경우 올해 4월, 5월의 대형 도축 가공 공장 직원의 COVID-19 감염 사태로 인한 도축두수 감소의 후유증으로 지육kg당 1.3달러에서 0.6달러로 대 폭락세를 보이며, 대형 수직 계열사는 물론 수많은 가족형 양돈장을 도산 시켰다.

미국의 도축두수가 8월부터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며 돈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2차 가공 처리 규모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위별 커트와 소매점 스펙 커트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만큼, 돈육 수출도 정상가동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7월 독일과 네덜란드 근로자들의 COVID-19 감염으로 도축 가공장이 폐쇄된 후 중국이 수입돈육의 COVID-19감염 우려를 이유로 독일 최대 육가공사인 Toennies 공장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구나 9월에 ASF 감염 멧돼지가 확인된 독일산 돈육의 전면 수입 중단 조치로 EU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35%를 생산하는 독일의 돈가는 30% 급락했고, 독일로 주간 75만두씩 수입되는 비육용 자돈가격까지 폭락세를 보이는 등, 유럽 돈육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양돈,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돈육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0.8% 감소한 2천 838만 톤. 돼지 도축두수는 11.7 % 감소한 3억 1천 868만 두를 기록했다. 네덜란드 농업 금융기관인 라보뱅크에 따르면, 중국의 2019년 돈육 생산량은 16년 만에 최저치인 4천 260만 톤으로 떨어졌고, 올해에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모돈과 돼지 사육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지난해 9

월 이후 번식 모돈 두수는 연속 11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8월의 모돈두수가 1년 전보다 37%, 8월 전국 돼지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한편, 내년 초 반부터 돈가는 본격적으로 하락해 예년 수준으로 회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부산물 포함한 올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총 수출량 중 중국의 수입량은 30-40%에 달하는 것이다.

(출처) 축산신문, ‘<논단>ASF·코로나로 격동하는 글로벌 돈육 시장’, 2020년 11월 4일자 기사(<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7108>)

6. (2020년 11월 5일) 미국 대선 진행,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유럽의 봉쇄조치 강화로 시장 불확실성 높아져, GDT 유제품 시세 2.0% 하락

지난 11월 3일 실시된 세계유제품경매(GDT)에서 3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2.0%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체다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가 2주전인 10월 20일 대비 각각 0.8%, 4.4%, 2.0% 내린 반면, 버터는 톤당 , 3,822 달러(약 432만 원)로 3.9%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유럽의 봉쇄 조치 강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10월 22일자)은 전지와 탈지분유는 2주전 대비 각각 0.4%, 0.5% 떨어졌고, 버터는 변동 없이 포함세를 보였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GDT 유제품 시세,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2.0% 하락’,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5일자

- 원문출처: globaldairytrade.info, 11월 3일, USDA Dairy Market news, 10월 23일자

7. (2020년 11월 12일) “진정한 시장 파괴자는 고객… 코로나로 바뀐 소비패턴 읽어라”, [동아비즈니스포럼 2020] ‘디커플링’ 저자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교수

경영전략서 ‘디커플링’의 저자인 탈레스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라는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달라진 요구와 ‘안전’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V’자 반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파괴를 주도하는 것은 신기술이 아닌 고객이며,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safety)’이다.” 전 세계를 뒤흔든 시장 파괴자들의 공통점을 밝힌 경영전략서 ‘디커플링(decoupling)’의 저자 탈레스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8년간의 연구 끝에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등의 신형 기업이 시장 판도를 뒤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디지털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제품 탐색, 평가, 구매, 사용 등 고객 가치사슬의 약한 고리를 끊고, 그 지점을 장악한 ‘디커플링’ 전략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동아비즈니스포럼 2020’의 강연자로 나서는 테이셰이라 교수는 “코로나 사태는 고객의 행동을 유례없이 급격하게 변화시켰지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중요시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집중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객 불안을 해결하는 기업에 기회

그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됐고, 소비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에 그는 영화, 외식, 공연 등 전 산업에 걸쳐 기존 사업장의 안전을 보증하고 감염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제3의 기업이 ‘디커플링’으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영화관, 레스토랑 등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홍보해봤자 많은 사람은 기업이나 운영자의 주장을 잘 믿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비디오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먹으려 할 것”이라면서 “신형 기업의 경우 ‘안전성 평가’라는 고객 가치사슬의 일부만 공략해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 기업들은 안전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객이 너무 많아도, 너무 가까이 앉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적은 인원을 수용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의 오프라인 환경을 그대로 쾌적하게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거나,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분리한 뒤 낮은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결국 레스토랑이나 바, 헬스장 등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가는 행위 자체가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럭셔리(사치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V’자 반등하는 곳도

그는 또한 고객의 달라진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에어비앤비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감염 우려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위축되면서 타격을 입었던 에어비앤비는 철저한 고객 중심 접근으로 최근 ‘V’자 커브를 그리며 매출을 회복했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CEO가 나서서 예약자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고, 호스트 피해도 일부 보상하는 한편 파티나 대규모 운집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이에 고객들이 돌아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묵는 호텔보다 에어비앤비를 더 신뢰하고 찾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도 디커플링을 통한 혁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테이셰이라 교수는 “고객의 시간이나 비용 등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고객의 안전과 건강이란 가치를 내세울 때 시장을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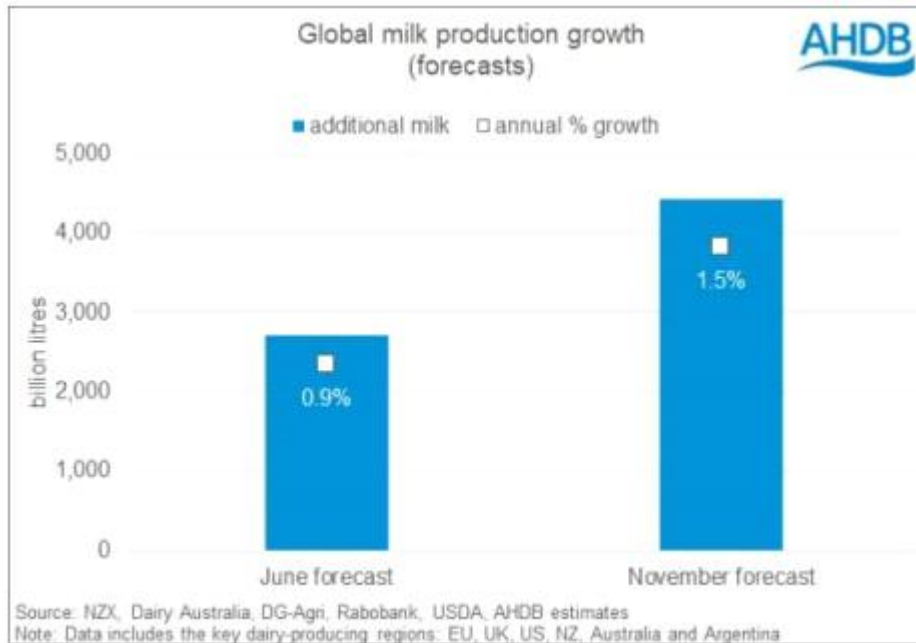
(출처) DongA.com, ‘ “진정한 시장 파괴자는 고객... 코로나로 바뀐 소비패턴 읽어라” ’, 2020년 11월 12일자 기사
(<https://www.donga.com/news/View?gid=103918460&date=20201112>)

8. (2020년 11월 16일) 금년 세계 원유생산 1.5% 증가 전망, 英 AHDB 발표-주요국 생산량 회복세...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 우려

올해 세계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USDA, 라보뱅크 등 주요 기관들의 예측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당초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던 세계 원유 생산량이 EU, 미국 등 주요 원유생산국의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올 초 코로나로 인한 소비감소와 유럽 등 북반구 국가의 원유생산량 증가가 맞물리며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낙농가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EU와 미국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가 유지되고, 원유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유럽에서는 2차 봉쇄에 돌입하면서 낙농업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 금년 세계 원유생산 1.5% 증가 전망 刪
 英 AHDB 발표-주요국 생산량 회복세...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 우려’,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1월 16일자
 - 원문출처: ahdb.org.uk, 11월 11일자

9. (2020년 11월 16일)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시장 변화와 대응

유럽의회조사처는 코로나 19로 인한 식품 시장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 소비 패턴은 변화하였고, 몇몇은 오랜 기간 지속할 것이다. 식품 시장의 대표적인 변화로는, △공황 구매 및 국경 폐쇄, △식품 오염에 대한 불안감 진정, △농산업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 등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식품 시장의 반응으로 공황 구매(Panic buying)와 국경 폐쇄가 가장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많은 국가가 봉쇄를 시행하였고, 사람들은 식료품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포장된 감귤류, 건조된 콩, 토끼 고기 등을 저장했고, 프랑스에서는 가공 육류, 파스타, 쌀, 영국에서는 고기 통조림, 비타민 영양제, 수프를 주로 구매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공황 구매가 발생하자, 식료품 체인점들은 업무가 바쁜 의료인들과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아침 일찍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구매 시간을 설정하였다. 식량안보 취약계층이 증가하여 푸드뱅크 이용자가 급증하였고, 동시에 봉사활동 및 기부 또한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오염 발생과 그로 인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진정되고 있으나, 식품 무역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식품에 있는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감염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식품 오염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자, 항공기로 운송되던 해산물, 과일, 채소 등 신선도가 중요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식품 무역이 어려워졌다. 중국은 베이징 시장에서 유럽산 연어와 관련된 물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로 유럽산 연어의 수입을 제재하고 있다.

식품공급사슬(food chain)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밀집된 공장의 식품 포장 노동자,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platform workers), 식품 검역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 유럽연합 내 농업 부문에서 연간 80만 명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계절근로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육류 가공공장에서는 하도급으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상을 숨기고 일하도록 강요 받고 있어,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식품공급사슬 재편 계획과 비상식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식량 위기가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2021년에 식품공급사슬과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춘 비상식량계획(food contingency plan)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의 길고 복잡한 적시 공급(just-in-time) 체계에서 벗어나 짧은 공급체계를 갖추어 풍부한 식품 공급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 단위(local provision)에서 의약품과 기본적인 식량을 포함하는 중요 품목(critical products)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시장 변화와 대응』,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45, 2020년 11월 16일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H65VA AJD/(20201116)_weekly_report.pdf)

- 원문출처: 유럽의회조사처,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shook up our relationship with food” (2020.9.24.),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html>)